

중국의 경제성장과 2012년 거시정책

2011년 제8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 경제성장 시나리오와 2012년 거시정책
2. 일 시 : 2011. 12. 14 (수) 16:00~18:00
3. 발표자 :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장평(张平)

1. 중국 거시경제 현황

□ 거시경제 추세의 한계

- 성장: 자연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이 없는 성장의 의미함.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없는 성장률은 7.8%~10.4%가 거시 목표 균형구간으로 확정되고 정책의 최적 구간은 8%~10%이며, 이때 정책은 중립을 유지함.
- 중국의 연 성장률 목표는 8%임.
- 물가: 5%는 온화한 인플레이션, 10% 이상은 악성 인플레이션, 마이너스는 통화긴축임.
- 정책한계: 8% 미만일 경우, 경기부양책이 필요, 7% 미만이면 강력한 자극정책 필요, 두 자릿수 성장률은 경제과열임. 현재 경제성장률은 아주 중요시 하지 않지만 인플레이션은 엄격히 통제

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이 4% 이상, 5%에 육박하면 거시정책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고, 5% 상회 시 긴축정책 실시, 10% 육박 시 강도 높은 긴축정책 실시, 물가동결 등 일련의 행정조치 실시함.
- 정책영향의 타임래그: GDP는 최소 한 분기 이후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완화되거나 긴축된 정책은 6~8개월 이후 GDP에 영향을 미침.

<표1> 2012년 거시경제 시나리오 전망

주요 경제지표	2011년 1분기~3분기 (실질)	2011년4/4분기 (예측)	2011년 전체 (예측)	2012년1/4분기 (예측)	2012년 전체 (예측)
1. 주민소비가격 (CPI)	5.7	4.7	5.4	4.8	4.1
2. GDP실질성장률	9.4	8.8	9.3	8.7	8.4
3. 사회소비품소매명목증가율	17	17.3	17.1	16.8	15.5
4. 고정자산투자명목증가율	25.2	24.6	25.1	22.8	18
5. 수출총액명목증가율	22.7	21.3	21.8	18	19
6. 수입총액명목증가율	26.7	24.1	25.8	22	20
7. 무역잔액 (억 달러)	1070.98	505.4	1576.38	38.1	1204
8. M2화폐잔액동기대비증가율	13.7	13.4	13.4	12.5	11.5
9. 신용대출잔액동기대비증가율	14.9	14.1	14.1	13	12.5

<표2> 주요 기관들의 중국 GDP 및 CPI 성장률 예상

발표시간 (년 월)	예측기관, 개인	시나리오	GDP (%)		CPI (%)	
			2011	2012	2011	2012
2011 04	세계은행		9.3	8.4	5	3.4
2011 08	하문대학(厦门大学), 싱가포르 국립 대학교 리관유 정부학원	기준 시나리오	9.28	8.91	5.34	4.93
		미국 더블딕		8.24		3.95
2011 09	아시아개발은행		9.3	9.1	5.3	4.2
2011 10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			8.5		3.2
2011 10	노무라증권		9.2	9.5		4.8
2011 10	IMF		9.47	9.04	5.5	3.3
2011 10	골드만삭스			8.6		3.1
2011 10	청화대학교 중국과 세계경제 연구센터			8.5		2.7
2011 11	스위스은행 왕타오(汪涛)	기준 시나리오		8.3	5.4	3.5
		미국의 더블딕		7-7.5	3	3.2
2011 11	삼성 경제연구소		9	8.4	5.7	4.8

□ 중국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의 균형 모델

<표3> 1985년~2011년 중국 GDP와 물가변동의 모델 시뮬레이션

CPI = -9.785 + 0.288*CPI(-1) + 1.385*GDP(-1) + [MA(1)=0.897]			
t	-2.5	1.73	3.73
P	0	0.09	0

주: 2011년 중국의 GDP성장률과 CPI를 각각 9.3%와 5.4%로 예상함. 1985년에 중국은 경제조정을 마치고 전면 개혁시기에 들어섬.

<표4> GDP 성장률에 따른 CPI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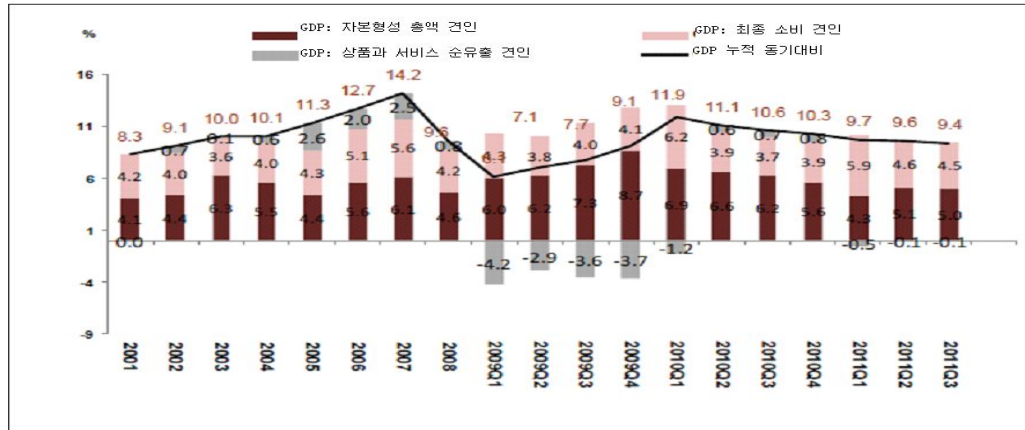
CPI(%)	-4	-3	-2	-1	0	1	2	3	4	5	6	7	8	9	10
GDP(%)	5.7	6.2	6.8	7.3	7.8	8.3	8.8	9.3	9.8	10.4	10.9	11.4	11.9	12.4	13

□ 정책 강약 조정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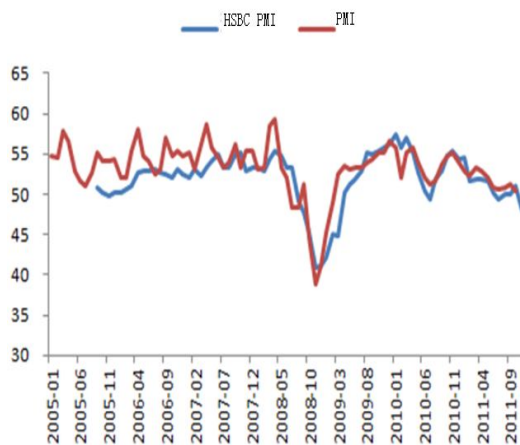
- 12.5기간 경제성장률 목표: 7%
-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외부충격
 - 에너지절약과 배출감소
 - 자본-노동비율 변화 (생산함수의 산출 탄성 자본은 7, 노동력은 3)
 - 인구보너스 종결
- 중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을 7.5%로 조정할 것을 건의하였지만, 공업정보부서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8% 유지"의 필요성 주장함.
- 장기적으로 물가는 상향 조정될 것임: 1%의 최소한도를 1%~1.6%로 확대.
 - 농산물 가격확정은 물가상승을 1% 견인
 - 국제화폐체계 변화의 충격
 - 국내 원가상승의 압력: 요소 재평가, 공공서비스 가격확정과 독점
- 현재 지도층교체 단계에 있기에 철도부 채권 등 정책동향은 단기적 문제이지 장기적인 개혁이 아님. 장기개혁도 시범단계에 있을 뿐임. 예컨대 부가가치세 범위 확대, 부동산보유세, 지방채

권 등은 시범화 단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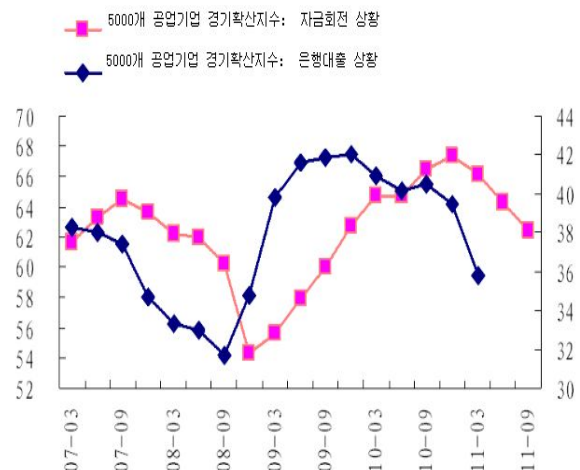
<그림1> 분기별 GDP 성장률의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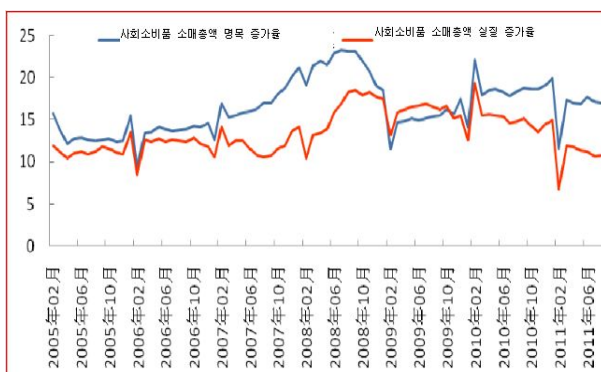
<그림2> PMI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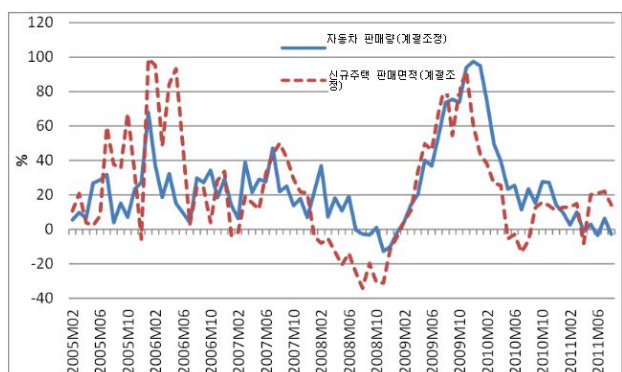
<그림3> 공업기업의 자금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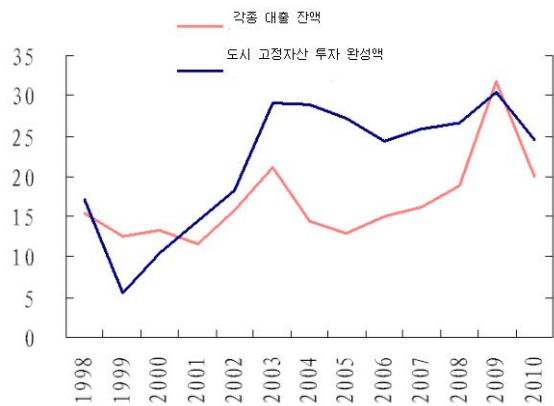
<그림4> 소비자품 소매 실질 증가율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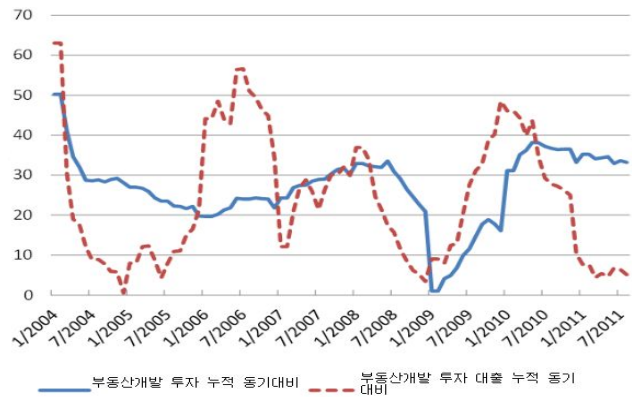
<그림5> 자동차와 부동산의 저속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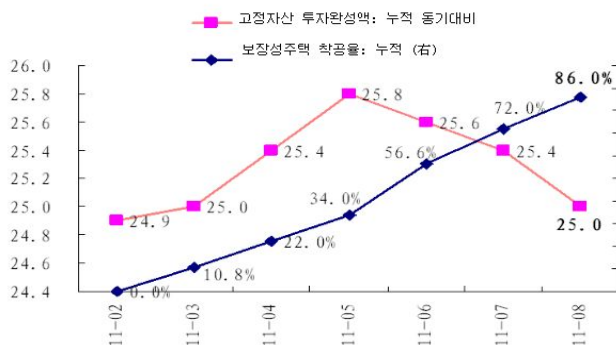
<그림6> 명목 투자증가율의 지속적인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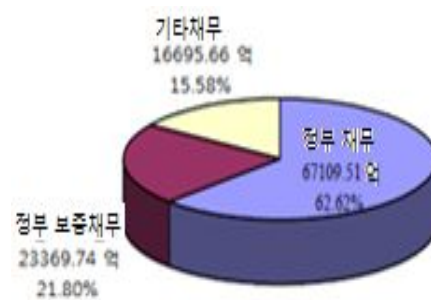
<그림7> 부동산에 의존한 투자



<그림8> 고정자산투자 증가율과
보장성 주택 착공률



<그림9> 지방채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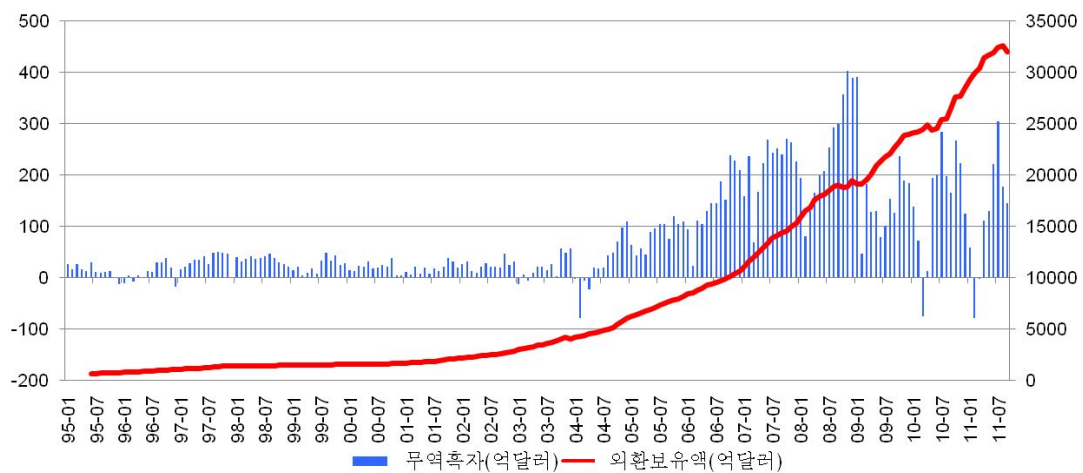
- 지방 채무는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2012년에 집중적으로 해결할 것임.
- 토지재정 곤란으로 이자지불이 어려움.

<그림10> 주요 12개 도시의 거래면적과 토지가격 추이



- GDP 성장에 대한 순수출의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외화보유액 증가도 감속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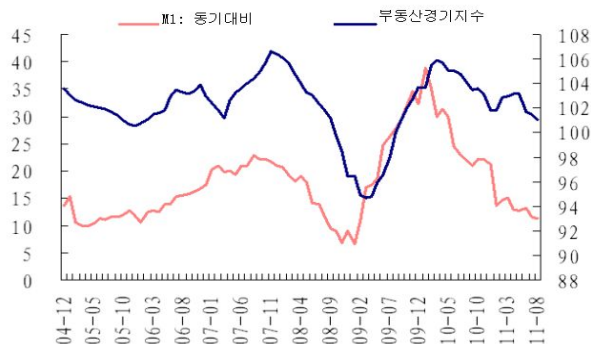
<그림11> 무역흑자와 외환보유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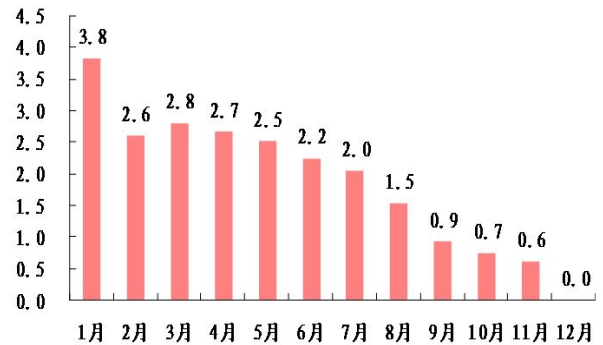
<표5> GDP성장에 대한 투자, 소비, 순수출 기여도

	투자 기여도	소비 기여도	순수출 기여도	GDP 성장률
“8.5” (1991-95) 1994년 위안화 대폭 절하	47.2	54.4	-1.6	12
“9.5” (1996-2000)	25	59	16	8.6
“10.5” (2001-04)	54.5	41.9	3.6	9.4
2005년 위안화의 온화한 절상	37.7	38.2	24.1	10.2
“11.5” (2006~10) (2010년 예측치)	57.5	45.1	-2.6	10.5
“12.5”(예측)	55	47	-5	9.6

<그림12> M1과 부동산 경기지수 추이



<그림13> 2012년 이월효과 예상치



□ 원가상승에 따른 농산물가격 상승

- 토지 유전도급 비용도 해마다 상승세 보임: 2010년 식량생산 비용 총액 대비 토지비용은 20%에 달하였음.
- 인건비도 해마다 상승함: 2010년 1무당 식량생산 비용 총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살펴보면, 곡식이 37.1, 밀 28.0, 옥수수 39.9, 콩 30.6, 숨 54.8이었음(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사).
- 전반적으로 식량작물의 인건비 비중은 미국보다 20%p 정도 높음.

<표6> 원가상승으로 인해 식품가격은 매년 최소 1%~3% 상승

	토지비용	인건비	물질비용
각종 요소비중	20%	40%	40%
요소가격 상승폭	5%	7%	10%
요소별 식량가격에 대한 기여도	1%	2.80%	4.00%
요소별 CPI에 대한 기여도	0.31%	0.87%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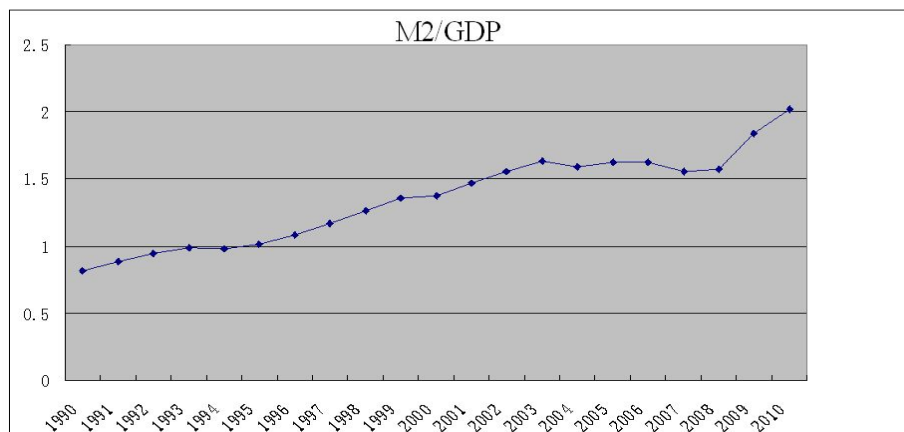
□ 물류비용이 높음.

- 중국의 비싼 교통물류 비용도 인플레이션 촉진 요소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GDP대비 중국의 사회물류 비용총액은 18% 내외로 선진국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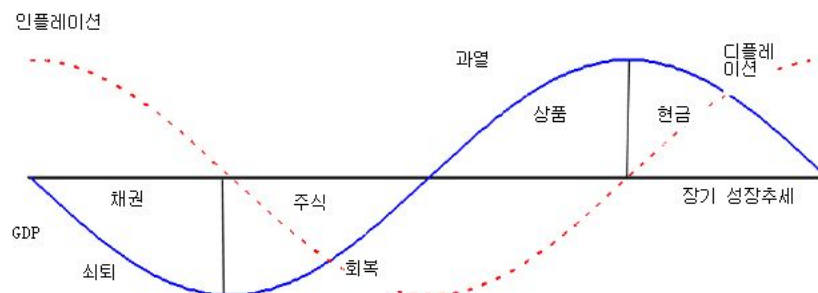
- 세계은행은 중국의 유통비용은 일반상품 가격에서 50%를 차지하고 농부산물 가격의 70% 차지함을 밝힘.
- 중국의 기존 도로망 중 95%의 고속도로, 61%의 1급도로, 42%의 2급도로는 모두 비용수취 도로임. 중국의 비용수취 도로는 19만km로 전 세계 비용수취 도로의 82%를 차지함.

□ GDP 대비 M2의 비율은 2배에 육박, 물가에 대한 통화량의 영향이 증대됨.

<그림14> M2/G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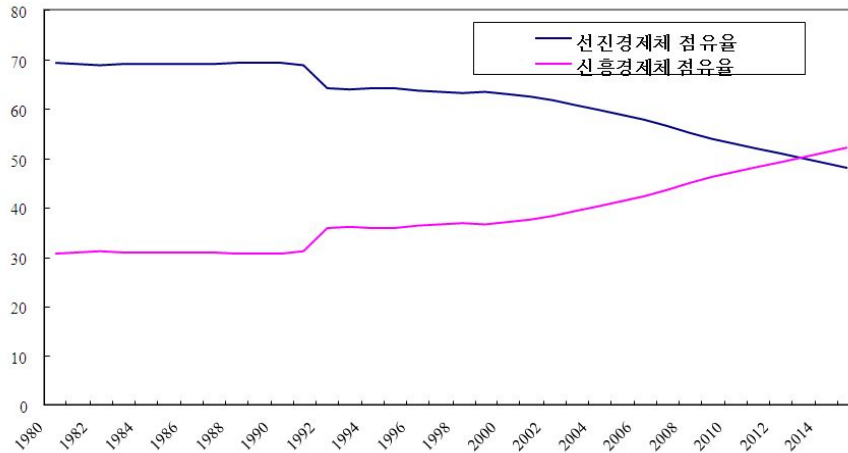


<그림15> 거시경제주기 구분과 자산배치



2. 국제금융위기 충격 하에서의 경제패턴

<그림16> 선진경제체와 신흥경제체가 전 세계 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PPP, %)



<표 7> IMF의 하향 조정된 전 세계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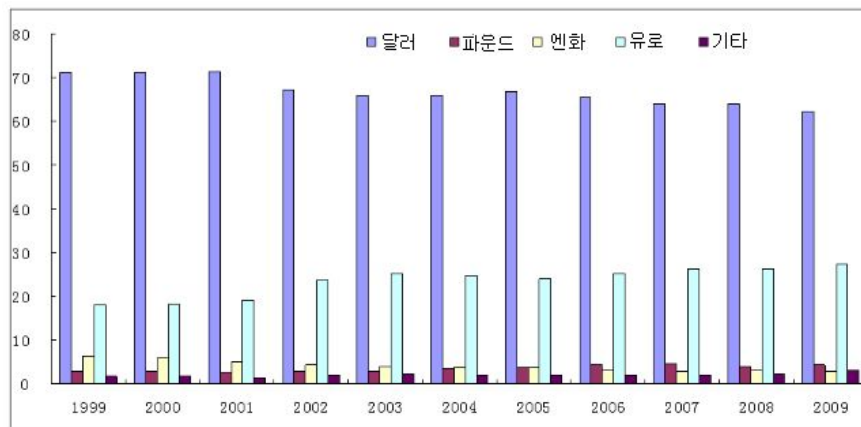
연도	2009-2012년 예측치				2011년6월 예측치와의 격차	
	2009	2010	2011	2012	2011	2012
전세계 산출	-0.7	5.1	4	4	-0.3	-0.5
선진경제체	-3.7	3.1	1.6	1.9	-0.6	-0.7
미국	-3.5	3	1.5	1.8	-1.0	-0.9
유로존	-4.3	1.8	1.6	1.1	-0.4	-0.6
독일	-5.1	3.6	2.7	1.3	-0.5	-0.7
프랑스	-2.6	1.4	1.7	1.4	-0.4	-0.5
이탈리아	-5.2	1.3	0.6	0.3	-0.4	-1.0
스페인	-3.7	-0.1	0.8	1.1	0	-0.5
일본	-6.3	4	-0.5	2.3	0.2	-0.6
영국	-4.9	1.4	1.1	1.6	-0.4	-0.7
캐나다	-2.8	3.2	2.1	1.9	-0.8	-0.7
기타 선진경제체	-1.1	5.8	3.6	3.7	-0.4	-0.1
아시아 신흥공업화 경제체	-0.7	8.4	4.7	4.5	-0.4	0
신흥 및 개발도상경제체	2.8	7.3	6.4	6.1	-0.2	-0.3
중동유럽	-3.6	4.5	4.3	2.7	-1.0	-0.5
독립국가연합	-6.4	4.6	4.6	4.4	-0.5	-0.3
러시아	-7.8	4	4.3	4.1	-0.5	-0.4
러시아 이외의 독립국가연합 국가	-3.0	6	5.3	5.1	-0.3	0
개발도상 중인 아시아	7.2	9.5	8.2	8	-0.2	-0.4
중국	9.2	10.3	9.5	9	-0.1	-0.5
인도	6.8	10.1	7.8	7.5	-0.4	-0.3
아시아 5개국	1.7	6.9	5.3	5.6	-0.1	-0.1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1.7	6.1	4.5	4	-0.1	-0.1
브라질	-0.6	7.5	3.8	3.6	-0.3	0
멕시코	-6.2	5.4	3.8	3.6	-0.9	-0.4
중동 북아프리카	2.6	4.4	4	3.6	-0.2	-0.8
사하라 이남	2.8	5.4	5.2	5.8	-0.3	-0.1

<표8> 국제무역 증가속도 완화와 물가 하락

연도	2009-2012년 예측치				2011년 6월 예측치와의 격차	
	2009	2010	2011	2012	2011	2012
전 세계 산출	-0.7	5.1	4	4	-0.3	-0.5
시장 환율에 따른 세계성장률	-2.3	4	3	3.2	-0.4	-0.5
세계무역건수	-10.7	12.8	7.5	5.8	-0.7	-0.9
선진국 물가	0.1	1.6	2.6	1.4	0	-0.3
신흥 및 개도국 물가	5.2	6.1	7.5	5.9	0.6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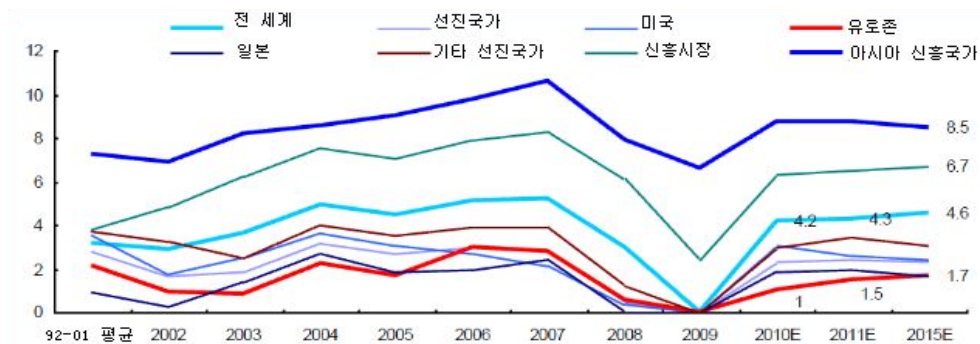
□ 국제 화폐의 내부구조에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달러의 지위는 여전함.

<그림17> 국제화폐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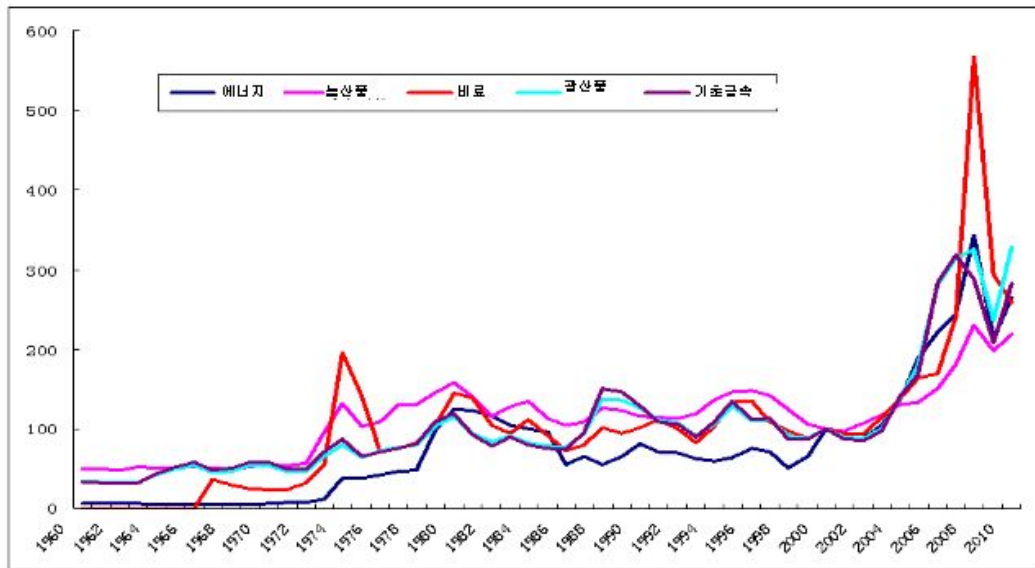


□ 인구와 관련된 성장: 15%의 인구 견인에서 50%로 상승함.

<그림18> 인구 관련 성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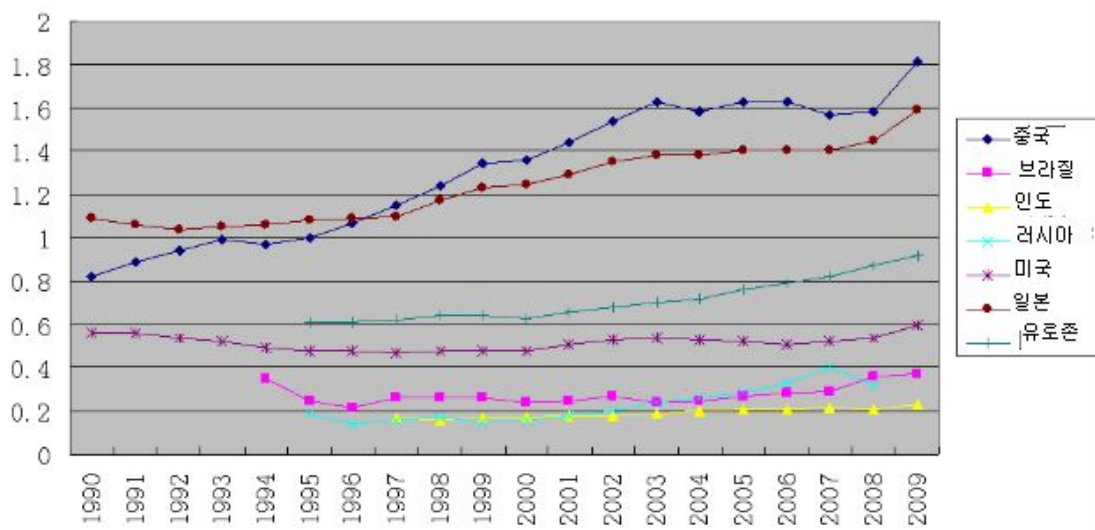
<그림19> 국제 주요 상품의 외부충격: 독점과 핫머니



□ 인구, 독점, 화폐가 상품주기를 재정의

- post 위기시대 인구와 경제성장이 밀접히 관련되지만, 일인당 자원점유 모델의 발전은 새로운 시기에 들어섬.
- 석유회사의 국유화: 1960년대 30%에서 2007년의 86%로 상승함.
- 전 세계 원유 저장량에서 OPEC, 러시아, 중국이 각각 70%, 6%, 1.3% 차지함.
- 국제적으로 과도한 통화유동성은 주요 상품 가격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임.
- 달러절하 속에서 불안정적인 국제 화폐체계
- 금융수단은 제2동력으로 됨. 예컨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품지수펀드가 50% 이상 차지함.
- 상품의 수요는 선진국에서 개도국 사이의 거래로 전환됨.
- 상품 결제, 거래규칙과 장소는 모두 선진국이 결정함.
- 전 세계가 확장적인 화폐정책을 취함.
- FRB에서 QE2를 실시하고 계속하여 7,460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하여 전 세계의 항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달러를 낮은 가격에 판매하였음. QE2는 중단기 기한 내에 미국국채를 매입하여 국채의 단기 수익률을 낮추고 금리의 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임.

<그림20> QE1 1.75조 달러, 중국 4조 위안



□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금리 수준

- 2000-2002년 경기 침체와 2007-2009년 경기 침체기에 금리를 대폭으로 인하 조정하였음.
- 미국연방기금금리는 이미 한계에 달하였고 2013년까지 금리 인상하지 않는 "양적완화"를 강화 시킴.

<표9>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대차대조표 (단위: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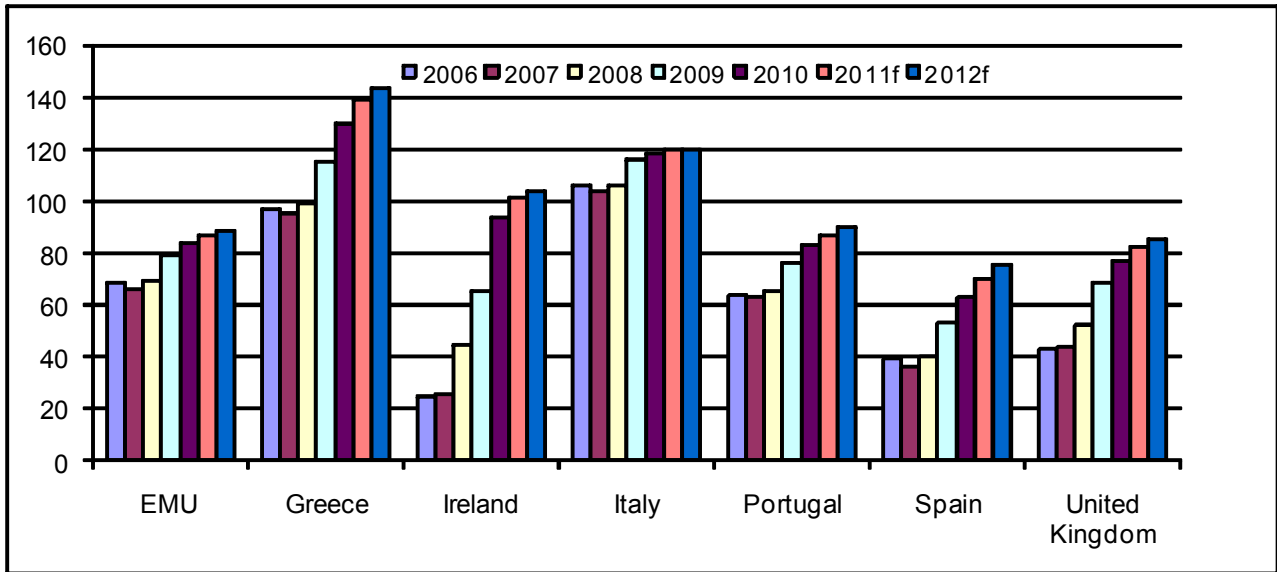
자산	금액	부채	금액
국채	1,645	화폐	993
기관채무	112	역RP	97
MBC	897	은행지급준비금	1,628
황금과 SDR	16	미국 재정부 저축예금	15
기타 자산	206	기타 부채	92
		자본계정	52

자료출처: FRB

□ 유로절상은 유럽채무가 높은 가장 핵심적인 추진요소임.

- 선진국가의 재정적자와 채무가 보편적으로 대폭 상승하였음.

<그림21> 유럽 주요국의 정부채무 (GDP대비 %)



- 그리스 채무는 50% 삭감 후에야 점차 감소할 수 있음. 채무 탕감 합의에 따라 2020년 그리스의 채무수준은 120%로 하락할 것임.
- 유럽구제기금 완전 보장 가능하지만 새로운 방안은 여전히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보장하기 어려움.
- 2012년 3월은 5개국(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벨기에)의 채무상환 집중시기임.
- EU의 도전: 정부지출 여전히 지나침.

□ post 위기시대의 새로운 패턴

- 선진국의 경제회복 둔화와 높은 실업률은 경제가 여전히 회복 중에 있음을 의미함. 2013년~2015년까지 회복할 것이고 유럽도 똑같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됨. 또한 대규모의 구조조정은 자원 배치에서 혁신으로 전환될 것임. 미국의 저금리와 양적완화는 신흥시장의 인플레이션을 가져옴.

- 세계패턴의 대변화: 선진국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50% 이하로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국제 화폐 공급자이기 때문에 금융과 실물경제의 마찰은 post 위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임.
- 신흥시장 국가는 적극적으로 충격에 대응해야 함.

3. 거시경제정책과 메커니즘

□ 2012년 거시경제 정책

- 물가상승 압력이 크므로 경제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
- 완화된 화폐정책, 안정적인 금융정책,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계속하여 추진할 것임.
- 중국 화폐정책의 선택: 2012년 화폐공급 속도는 정상화되어 13%를 유지하고 사회 용자총량을 확대할 것임.
- 금리는 기존 수준을 유지할 것이지만, 시장의 고금리를 억제하기 어려워 금리수준을 한층 더 상승시킬 것임.
- 2012년 환율의 일일 변동 폭을 7/1000로 증가시킬 것임.
- 직접용자의 증가와 채권시장의 발전은 모두 체제개혁이 필요하며, 보장성주택의 리츠(reits)를 출시할 것임.
- 완화된 화폐정책은 지방 용자 플랫폼, 재정, 부동산기업, 중앙기업,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위기"를 완화할 것임.
-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것임.

- "12.5"기간 동안 에너지절약과 배출감소는 매우 중요하므로 지역별 계획을 잘 확정해야 함.

□ 화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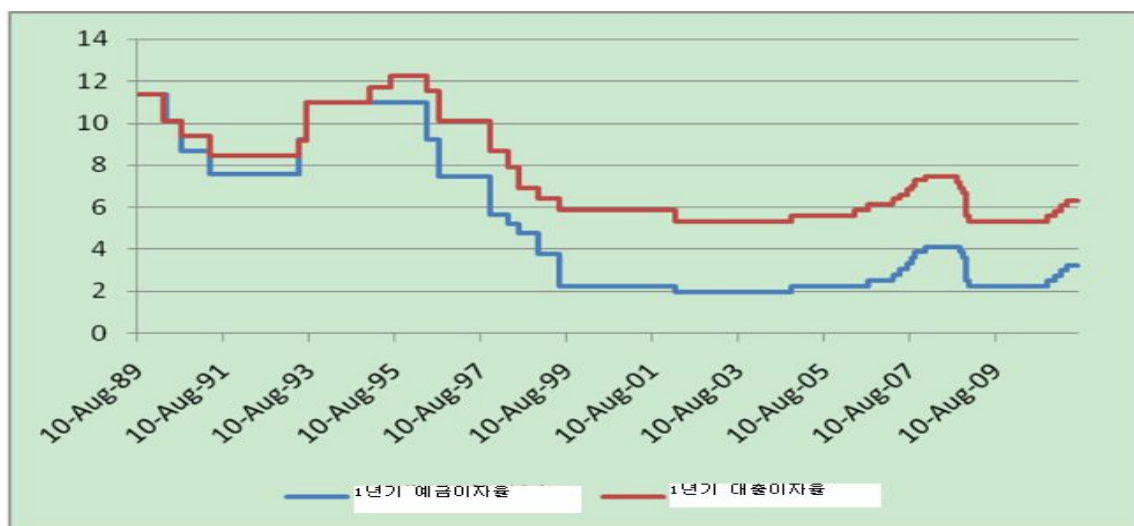
- 중국 화폐정책 변화: 1999년-2003년 안정적인 화폐정책 실시, 2004년-2007년 안정적인 화폐정책에서 적절히 긴축된 정책으로 전환, 2008년 긴축된 화폐정책 실시, 2009년-2010년 적절히 완화된 화폐정책 실시, 2011년 안정적인 화폐정책 실시
- 화폐정책 실시 주요조치: 법정 예금 기준율, 중앙은행 채권발행, 예금대출금리, 공개시장업무, 신용대출 관리제어 정책 (창구지도)

□ 화폐정책 실천 결과

- 2005년 중앙은행 목표: M2증가율 15%, M1증가율 15%, 신규 대출 2조 5천억 위안
- 실제 집행결과: M2증가율 17.57%, M1증가율 11.78%, 신규 대출 1조 7천억 위안, 법정 기준율과 예금대출금리 조정조치가 없었음.
- 2006년 중앙은행 목표: M2증가율 16%, M1증가율 14%, 신규 대출 2조 5천억 위안
- 실제 집행결과: M2증가율 16.94%, M1증가율 17.48%, 신규 대출 3조 1800억 위안, 긴축된 정책은 1차례에 걸친 예금대출 금리 인상과 3차례에 걸친 법정 예금 기준율 인상임.
- 2007년 중앙은행 목표: M2증가율 16%, 신규 대출 2조 8천만 위안
- 실제 집행결과: M2증가율 16.7%, 신규 대출 3조 6400만 위안, 긴축 정책은 10차례에 걸친 법정 기준율 인상과 6차례에 걸친 예금대출 금리 인상임.
- 2008년 중앙은행 목표: 신규 대출 3조 6400만 위안
- 실제 집행결과: 신규 대출 4조 7700만 위안, 화폐정책은 1-6월 사이 6차례에 걸친 법정 기준율 인상과 9-12월 사이 4차례에 걸친 법정 기준율 인하 및 5차례에 걸친 예금대출금리 인하임.

- 2009년 중앙은행 목표: M2 증가율 17%
 - 실제 집행결과: M2 증가율 27.68%, M1 증가율 32.35%, 신규 대출액 9조 6288.96만 위안, 그간 법정 기준율과 예금대출 금리 등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음.
 - 2010년 중앙은행 목표: M2 증가율 17%, 신규 대출액 7조 5천만 위안
 - 실제 집행결과: M2 증가율 19.72%, M1 증가율 21.19%, 신규 대출액 7조 9500만 위안, 그간 화폐 정책은 6차례에 걸친 법정 기준율 인상과 2차례에 걸친 예금대출 금리 인상, 한차례에 걸친 재대출 금리와 어음 재할인율의 인상임.
 - 2011년 M2 증가율은 16%로 예상됨. M1과 신규 대출액에 대한 조정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매일 대출동향을 보고하는 체제를 실시하였음.
- 마이너스 금리가 금리인상을 촉진하였음. 2011년에 3.75%까지 상승하고 금리탄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그림22> 최근 1년간 금융기관 예대금 기준이자율



<표10> 신속하게 조정된 사회용자구조

	2011년 상반기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사회용자총량	7.76	14.3	14.12	6.67	5.94	4	2.13			
위안화신규대출	53.7	55.6	68.1	71.5	61.3	79.3	82.1	78.8	81	92
외화대출(人民币)	4.3	2.9	6.6	0.9	4.9	2.5	3.7	4.8	6.7	3.7
위탁대출	9.1	7.9	4.8	6.2	5.7	4.7	3.4	11.1	1.8	0.9
신탁대출	1.2	2.7	3.1	4.6	2.9	2.1	-	-	-	-
은행인수어음	17.1	16.3	3.3	1.6	11.3	3.8	0.1	-1	5.9	-3.5
기업채권	8.5	8.4	9.2	8.1	3.9	2.1	7	1.8	1.6	1.6
비금융기업주식발행	3.4	4.1	3.2	4.9	8.1	3.4	1.2	2.3	1.6	3
보험회사보상		1.3	1.2	2.2	1.8	2.1	2.5	2.1	1.5	2.1
보험회사투자성부동산		0.1	0.1	0.1	0.1	-	-	-	-	-

<표11> 대출구조

	대출금	중장기대출금		중장기대출금비중	
년도	잔액 (조 위안)	증가율	잔액	증가율	중장기비중
2000	9.94	13.4	2.79	16.53	28.11
2001	11.21	11.6	3.92	40.48	34.94
2002	13.13	15.8	4.86	23.97	37.05
2003	15.9	21.1	6.34	30.34	39.88
2004	17.82	14.5	7.67	20.98	43.04
2005	19.47	12.98	8.75	14.02	44.92
2006	22.53	15.07	10.65	21.83	47.28
2007	26.17	16.1	13.15	23.45	50.27
2008	30.34	18.73	15.5	17.84	51.09
2009	39.97	31.74	22.24	43.5	55.65
2010	47.92	19.4	28.89	29.9	60.29

□ 은행체제 내의 유동성이 매우 부족함.

- 예금 준비금 인상 및 신용대출 창구규제로 은행 체제 내 유동성이 대폭 감소함.
- 대출받지 못한 기업이 예금을 인출하면서 은행의 유동성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환율정책 변화

- 1979년-1984년 내부 이중 고정환율제 실시. 정부 측 환율은 1달러-1.5위안이고 무역내부 결산 환율은 1달러-2.8위안임.
- 1985년-1993년 소폭변동연계제와 자유변동환율제 실시. 정부 측 환율: 소폭변동연계, 달러 외환 시장환율: 자유변동제를 취함.
- 1994년 환율제 통합, 시장수요 공급을 기초로 하여 단일한 관리변동환율제를 실시, 1994년-1997년 달러대비 위안화가 4.8% 절상하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달러를 연동한 고정환율제를 실시하여 1달러~8.2위안임.
- 2005년 7월 21일부터 시장수요 공급을 기초로, 바스켓화폐를 참고하여 조절, 관리변동환율제를 실시함. 2005년 7월 21일~2008년 6월 말 달러대비 위안화 20.6% 절상함.
- 2008년 7월 국제금융위기 영향 확대 후,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이 6.81~6.86 범위 내에서 변동함.

□ 2005년 환율 개정 후 달러 대비 위안화 변화는 5개 단계를 거쳤음.

- 2005년 7월-2006년 6월, 환율 개정이 시작되고 중간환율이 시범적으로 완만히 절상하여 연 절상폭이 1.4%임.
- 2006년 7월-2007년 6월, 시장반응이 안정적이고 중간환율은 신속히 절상하여 연 절상폭이 5%에 달함.
- 2007년 7월-2008년 6월, 흑자가 대폭 증가하고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누적되었으며, 중간환율이 빠르게 절상하여 연 11% 절상함.
- 2008년 7월-2010년 5월, 금융위기 영향이 가중되고, 수출이 대폭 하락하였으며, 중간환율이 다시 안정세를 유지함.

- 2010년 6월-현재, 환율개정 재개, 위안화 유연성이 점진적으로 강화함.

□ 도시건설용지 확장 가속화, 토지도시화는 인구도시화보다 훨씬 빠른 추세를 보임.

- 2001-2008년, 전국 도시건설구(區) 면적과 건설용지 면적이 각각 6.2%와 7.4% 증가하였음. 하지만 도시인구 증가율은 연 평균 3.55%에 불과하고 2010년 도시인구는 50%로 집계됨. 토지면적 증가율은 2.5-3.8%p 상승하고 현재 도시화 인구에 근거할 경우 적어도 약 10년 간 인구의 도시 진입이 가능함.

□ 최근 토지에 의존한 "평면확대"를 통해 도시경제가 고속 성장함.

- 1996-2008년 중국 각 도시의 건설구(區)면적은 평균 30.4km²에서 55.4km²로 확대되고 각 도시 건설용지 면적은 평균 28.5km²에서 59.8km²로 확대되어 각각 82.2%와 109.8%로 증가함.
- "11.5"기간 전반 3년(2006-2008), 전국 도시건설용지 면적은 연 평균 확장범위가 "10.5"기간의 6.5배에 달함.
- 도시 공간 확장의 3가지 주요방법: 현(市)을 없애고 구(區)를 설립, 신구(新區) 설립, 산업단지 확장
- "토지재정"은 도시 공간 고속 확장의 동력이며, 각 도시정부는 토지사용권 판매를 통한 지방재정수입 확대에 몰두함.
- 중국 도시화율은 1992년 27.5%에서 1997년 32%, 2010년 48%를 기록함. 2015년(53%)이 되면 전환점에 달할 것이며, 건설주기는 23년이고 그 이후 도시화 진행속도는 점차 약화될 것임(예컨대 도시화율 상승률은 매년 1.25%p에서 0.7%p로 하락).
- 지역별로 각각 다른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며, 동부지역 도시화는 감속추세를 보이고 중서부지역 도시화는 여전히 가속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 경제구는 공업화 후기에 진입

- 2008년 탈공업화 단계에 진입하는 3개 시와 4개 성, GDP비중 45%, 총인구 3억 6천만 명, 일인당 GDP가 5,300달러를 초과함.
- 후기공업화에 진입한 11개 성시의 GDP비중이 33%, 총인구가 4억 명, 일인당 평균 GDP가 3,700 달러에 달함.
- 중기공업화에 진입한 11개 성시는 GDP비중이 22%, 총인구 4억 7천만 명, 일인당 GDP가 1,940 달러임.

<표12> 주요 경제구 발전추이: 공업화 단계별

		전국	4대경제구	7대경제구
5. 탈공업화	(3개 시, 4개 성)	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둥, 저장, 쑤저우, 산둥	동부	장삼각주 주삼각주
4. 후기 공업화	후반단계 (2개)	전국		환보해
	전반단계 (9개)	랴오닝, 푸젠		
3. 중기 공업화	후반단계 (11개)	산시, 지린, 네이멍구, 후베이, 허베이, 헤이룽장, 닝샤, 충칭, 산시	동북	동북
			중부 서부	중부6성 대서북
	전반단계	칭하이, 후난, 허난, 신장, 안후이, 장시, 쓰촨, 간쑤, 윈난, 구이린, 하이난		대서남
2. 초기 공업화	후반단계 (1개)	구이저우		
	전반 단계			
1. 공업화 이전	전반단계 (1개)	시짱		

□ 지방 부채표식의 확대가 2012년 지방 투자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총 국가 부채액: 2009년 국채 6조 2천억 위안, 외채 2조 6천 4백억 위안에 달함.
- 지방 부채표식 확대 메커니즘: 토지평가+부채, 토지사용권 판매 수입 1조 3천억 위안, 이외에 2조 위안의 대출이 필요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액은 10조 7천억 위안에 달함.

- 국유기업 부채표식 확대: 주주권+토지자산 등 평가 +부채: 국유기업 총 자산은 35조 위안, 부채율이 80%를 초과함.
- 개인 가정 부채: 주택과 자동차 및 신용카드 소비 부채액이 7조 5천억 위안으로 약 20%를 차지하며, 총부채가 저축의 41%에 달함.
- 현재 국가부채율은 높지 않으나, 부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량의 부채는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자산 평가 및 평가절상과 관련이 있음.
- 역전메커니즘: 토지의 현금흐름 하락, 부채가 증가하고 지방투자 능력이 하락함.

□ 현재 부동산과 지방 융자 플랫폼 및 중소기업 현금흐름 리스크가 아주 심각함.

- 부동산가격과 부동산 판매의 계속된 하락으로 현금흐름 리스크가 가중됨.
- 지방 융자 플랫폼은 조세수입과 토지사용권 판매에만 의지하고 기타 다른 수입원이 없어 융자금 상황을 연기해야 함.
- 중소기업 도산이 가속화되고 원가상승과 수출억제 및 금융여건의 악화로 중소기업수출난이 발생
- 금융리스크를 감소시키고, 금융혁신과 투자구조 고도화를 통해 발전방식의 전환을 유도함.
 - 제3시장 발전, 다양한 주식거래 시장 건립, 직접융자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을 발전시킴.
 - 자산증권화 혁신 시범시행, 지방도시 건설을 위한 채권 지속 발행을 통해 채권시장을 확대시킴.
 - 정책성 리스크 은행의 발전,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속한 발전 등을 통해 다양한 융자 루트를 형성함.
- 중국의 투자하락은 자연히 취업률을 하락시킬 것이므로 도시 서비스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함.

□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조세개혁의 시범시행

- 여전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2%의 재정적자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을 지속적으

로 확대해야 함. 사회보장과 이전지출 등 지출은 이미 줄일 수 없게 되었음.

- 조세의 증감: 부가가치세를 3차 산업과 중소기업까지 확대시키고, 자원·환경보호·에너지자원 등 조세개혁을 통한 증세, 교육부가가치세 제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재정문제의 핵심은 유통세와 직접세의 비율임. 직접세 징수관리 체계를 건립하고 예산 투명 등 관련 정책을 실시함.
- 시범시행: 부가가치세 범위를 확대시키고 용자분권화, 부동산세 확대를 추진하며 공공기초시설 서비스 가격을 조정함.

<질의응답>

질문 1.

최근 사회과학원에서 발표된 자료에서 2012년 GDP성장률을 8.9%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오늘 발표된 예측치와 일치하지 않음. 어느 부분에서 조정되었는가? 2012년도 GDP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투자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중 지방채무와 국유기업의 부채율이 중요한 요소로 판단됨. 중앙정부는 지방 채무에 대해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그리고 국유기업의 부채율이 80%에 달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부가 용인할 수 있는 최고수준은 얼마라고 판단하는가?

답변 1.

사회과학원에는 여러 개 연구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회과학원을 대표하여 대외에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연구소는 수량경제연구소로, 경제연구소의 예측치와 일정 차이가 날 수 있음.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님. 구체적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세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지방 채무에 있어, 은행의 압력이 비교적 큼. 개인적으로 볼 때 ① 채무 상환기간 연장, ② 중앙은행의 재대출 확보, ③ 지방 신용채권 발행 허가 등 방법을 통해 은행의 단기 현금흐름 리스크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됨.

국유기업의 부채율은 사실상 75%로 통제하고 있는데 위에서 80%라고 말한 것은 주로 대형 국유 기업은 부채가 있지만 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임.

질문 2.

지방 채권을 얼마 더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 있는가? 현재 높은 부동산가격에 대해 많은 사람이 하루속히 부동산 보유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실시되지 못한 실정임.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답변 2.

과거 중국은 지방채권 발행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최근 중앙정부는 4개 지방정부가 채권을 독립적으로 발행하도록 허가하였음. 지방 채권과 관련된 법적 규정은 없음. 또한 상세한 법적 규정이 없기에 지방채권 발행은 경제성장 시기의 단기적인 특수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뿐이고 입법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012년에 지방채권 발행범위와 발행액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되지만, 발행액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결정할 권리가 없음.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에서 협상을 통해 지방의 발행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법률 차원에서 보면 중앙차원에 속함.

부동산 보유세는 사실 일종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음.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 귀속 조세이지만, 지방 정부는 부동산보유세로 재정수입을 획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함. 즉 부동산 보유세 징수액이 토지판매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적극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음. 이 외 현재 날로 많은 사람이 부동산보유세의 징수는 자원이용에 유리함을 지적하고 있음. 최근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부동산을 황금처럼 일종 투자수단으로 활용하지는 않고 소지하고만 있으며 심지어 일인당 10채 내지 그 이상의 주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는 토지부족이 심각한 중국에 상당히 불리한 것임. 따라서 현재 부동산 보유세를 적게 징수하든 많이 징수하든 그 징수액을 떠나서 토지자원 활용에 유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추진해야 함.

질문 3.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에 있어 많은 외자기업이 아주 큰 공헌을 하였음. 2012년에는 경기둔화뿐만 아니라 인건비 상승, 지방채무, 국유기업 부채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이와 더불어

어 많은 외자기업에 대한 과중한 과세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예컨대 외국기관의 중국 상주대표처에 대한 세금징수, 사회보험법 적용 등 국내기업보다는 외자기업에 대해 엄격한 제도를 통해 중국정부가 더욱 많은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 같음. 이럴 경우 외자기업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꺼려하거나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사회과학원이나 중국의 연구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중국에 남아서 계속 경영하는 기업은 어떤 정책을 사용해야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가?

답변 3.

사실은 한국기업을 비롯한 외자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도 조세부담이 크고 지속적으로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등 애로사항을 많이 밝히고 있음. 세계은행은 중국은 전 세계에서 조세부담이 가장 큰 국가라고 지적한바가 있음. 과거 중국이 고속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을 때는 조세가 문제점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심각한 문제로 반영되고 있음. 이는 외자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애로사항임.

한국도 똑같이 겪었듯이 경기둔화 시기에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려면 노동생산성 향상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 경쟁력과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기업생존의 근본이라고 생각함.